

#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7.11.(월) 10:30, 조중훈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북한 내 우리 측 재산 침해와 관련하여 통일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북한 방송을 통해 개성공단 통근버스로 추정되는 차량의 개성시내 무단운행이 포착된 것을 비롯하여, 금년 3월경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우리 측 시설을 철거해오고 있는 등 북한 내 우리 측 재산에 대한 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지역에 있는 우리 측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 또는 사용해오고 있는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과 관련한 NGO 교육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기반을 확충하고자 대북지원단체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관련 NGO 관계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및 북한의 기후위기 인식과 국제협력 가능성 등을 주제로 특강과 파주에 있는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센터 방문 일정 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7월 13일 수요일 오전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2022 아시아 리더십 콘퍼런스 개최식에 참석할 예정이고, 같은 날 오후에는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통일부 장관은 7월 14일 목요일에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면담은 모두 부분까지 공개하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2019년 11월에 발생했던,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발생했던 귀순 어부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와 여당 쪽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북한 선원 북송과 관련한 문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당시 정부와 통일부의 발표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지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거 조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밝혔는데요. 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호대상이 아닌 것과 또 우리 국민인 것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라고 판단했을 때 이 사람들을 과연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했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원 북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당시 3년 전에 통일부, 당시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 조사에서.' 이렇게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귀순 의사를 밝힌 이 2명의 어부가 동료선원을 살해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효한가요?

<답변> 그 당시에 통일부가 언론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맞습니다. 통일부의 언론브리핑과 관련해서 합동조사 및 선원 추방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 통일부는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이후에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 11월에 국회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당시 어민들이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한 통일부가 파악하고 계시는 것을 좀 여쭙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귀순을 하겠다고 했는데 북송을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했다고 하면 어떤 점이 문제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선원 북송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 11월에 국회 보고 당시에도 통일부 보고내용 중에 '선원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